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식 내면화에 관한 소고

- 세이비어교회를 중심으로 -

김세중 (아주대경영대학원 교수)

1. 사회적 책임
2. 세이비어교회의 훈련과 사역
3. 공적신앙의 교육과정

1. 교회의 사회적 책임

오늘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강조가 되고 있으며 시대의 화두가 되어 기업을 비롯한 각 기관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보통 우리는 CSR 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으로 이해하고 배우며 또 가르치고 있다. 필자 또한 경영대학원(MBA)과 기업 등에서 CSR(사회적책임경영) 과 CSV(공유가치창출경영) 에 대해 가르쳐 왔지만 항상 머리 속에서는 CSR 이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로 번역되어 떠나질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겪고 있는 비난과 갱신의 요구의 핵심적인 원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하나님(The Social God)을 저술한 영성가이며 사회신학자인 케네스 리치에 의하면 복음주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서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심이 부활하고 있으며 이것은 로잔 언약 이후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사회적 본질을 나타내며 따라서 기독교도 사회적이고 참여적이라고 주장한다. 구태여 신학자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성경구절에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 22:37-39)**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들에서 세상과 이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즉 사회(Society)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웃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빈곤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해석이 된다.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희생적인 삶의 원리를 따른다면 교회 역시 이 사회를 ‘그처럼’ 사랑하여 교회 자신을 내어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이며 교회와 그 구성원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이윤(Profit)을 좇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윤을 좇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교회는 더욱 사회적 책임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기독교에 특히 개신교에 쏠려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일반 세상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인해 그 동안 한국교회의 최대관심이 되어왔던 교회성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사회사역을 위해 먼저 인적, 재정적 자원을 쓸 때 교회성장이 희생되지 않을까? 우리는 곧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의 근본적 원인은 그 동안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성장에 대한 개념이 양적인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최대한 끌어 모으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막상 하나님나라의 성장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교회 안이건 밖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나라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사람들을 파송하는 Outward Journey 를 실천할 때이며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교회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올바른 성장은 성숙이며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타자를 배려하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내적, 외적으로 진정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The Church of the Saviour)는 1947년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로 정교인이 150명을 넘어 본 적이 없는 교회이다. 워싱턴 DC는 백악관과 의회를 포함한 세계권력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도시였으며 중심가를 벗어나면 흑인이 많고 노숙자, 병자, 호스피스 병동이 필요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이 교회가 나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7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9개의 신앙 공동체로 구성되며 사회봉사사역에 연간 2,000만불 (2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평균 약 5%의 재정이 순수한 사회봉사 사역에 쓰여지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단순 산술계산으로 하면 10만~20만 성도 규모의 대형교회가 (연예산 2,000억 이상) 할 수 있는 사역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세이비어 교회의 훈련과 사역

교회 설립자인 고든 코스비 목사는 버지니아의 침례교회 출신으로 청소년 그룹의 리더로서 활동했으며 불과 15세때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지방의 흑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4년간 비공식적인 목회를 한 특이한 경력이 있다. 그 후에 신학을 했는데 이후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군목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101 공정부대에 배치되어 2차 대전에 참전하던 중 유럽의 격전지에서 무수한 젊은이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죽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된다. 인생의 근본 고통에 대한 질문을 품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다시는 전통적인 목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제대 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목회 비전을 세우고 1)인종차별 등 일체의 차별이 없는 교회, 2)온전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그 역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가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존 록펠러 재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비전의

차이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고든 목사는 큰 규모를 통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된다. 대신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교회의 원리는 마태복음 22:37 에 나온 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47년 워싱턴 19번가에 작은 건물을 구입하여 8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The School of Christian Living 이라는 입교훈련 프로그램을 세우고 첫번째 헌신 서약자를 세우게 된다. 특히 부인인 메리 여사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실내장식에 힘을 기울인다. 빈민지역의 사역일수록 아름다움은 영혼을 살찌운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탁월한 시도로 판단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적인 훈련(Inward Journey) 과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외적인 사회참여(Outward Journey) 를 목표로 훈련을 하였으며 1953년 리더스다이제스트 잡지에 사회변화를 위한 목회철학이 소개되면서 21세기 교회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6년까지 120명의 교인이 등록하였다.

조직과 훈련의 강화를 위하여 1988년 Servant Leadership School 을 세우고 각 사역형태를 따라 지교회 형태의 10개의 신앙공동체가 세워졌다. 각 신앙공동체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독립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고 각 공동체마다 소그룹 사역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교회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도 외적인 사회참여 실천은 쉽지가 않았다고 한다. 바로 각 사역조직의 비영리단체화가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사회봉사사역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교회와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비신자들과 타종교를 포함하는 일반 기부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사역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봉사사역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한 미국정부가 예산의 25%를 매칭펀드로 지원하게되기에 이르렀다. 세이비어교회 조직의 사회봉사사역으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절감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미국정부는 Pay For Success 즉 실현된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나라가 지역교회에서 일반사회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2.1. 교육훈련과정으로는 영적인 훈련과 외적인 사회봉사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진다. 초중급과 고급이라는 개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의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적신앙의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School of Christian Living : 사적인 신앙교육 과정

교인이 되기 위한 1년간의 입교훈련 과정으로서 교인과 비교인이 함께 교회의 사역과 삶을 배우는 신학교이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교회의 몇주간의 입문과정과 달리 제자훈련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이비어교회의 정식 입교인이 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하루 한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 2) 약 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번트리더십학교의 훈련과정에 참여

하고 지속적인 연장교육에 참여하는 것

- 3) 온전한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것
- 4) 소그룹 사역공동체 모임에 한주간에 한번씩 참여하는 것
- 5) 교회와 연관된 45가지의 지역사회 사역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
- 6) 자신의 삶의 전지경을 포함하는 영적 자서전을 써서 공동체에 발표하는 것
- 7) 매년 각 신앙공동체 주관 3박4일 침묵기도 영성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 8) 교인의 자격을 매년 갱신하는 것
- 9) 자신의 삶을 개방하여 동료들과 함께 보다 깊은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데 동의

2. Servant Leadership School : 공적인 신앙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를 개인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삼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섬기는 리더”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신앙교육의 5가지 목적은 ;

- 1) 영적인 훈련을 통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 2)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며
- 3)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 4)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에 헌신하며
- 5) 더 나아가서 용기 있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소명은 종종 우리 삶에서 경험한 어떤 고통과 관련이 있다. 서번트리더십 과정에서는 입문시에 다음과 같은 에세이를 쓰게 한다.

질문 에세이 :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은 무엇이며 그 고통 아래에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통받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슷한 고통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신다. (엘리자베스 오코너)

아이러니컬하게도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서번트리더십스쿨은 6개 이상의 세부과정으로 구성되며 기본 6개 과정은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정당 12주 (외부 목회자나 평신도도 가능) 과정이며 클래스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1) 기도 (Contemplation Prayer – 관상기도 또는 중심기도)
- 2) 성서 연구
- 3) 공동체
- 4) 하나님의 소명
- 5) 빈부로부터의 자유
- 6) 신령한 능력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 1) Conversation : 세이비어교회의 사역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과정
- 2) Servant Leadership : 목회철학인 다양한 종류의 섬김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과정
헨리 나우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자의 삶) 필독
- 3) Community : 진정한 제자의 삶에서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공부한다.
영성과 사역의 중요한 연결점 - 공동체
(디트리히 본회퍼, 장 바니어, 엘리자베스 오코너의 책 필독)
- 4) 빈민지역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워싱턴 빈민지역과 사역기관들을 견학한다.
지역주민들의 관점과 참여 방법들을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관들의 사역을 배우며 빈민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과정
- 5) 사막교부 연구 : 초대교회와 동방 정교회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대한 글들을 읽고 초대 교회의 영성과 관상기도 등 여러가지 기도의 유형에 대해 배우는 과정
- 6) 하나님의 소명 :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에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 7) Authentic Church 진정한 교회의 탐구 :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교회의 역사, 세이비어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통해 조명하고 각자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2.2. 세이비어교회의 사역 전개과정

설립 초기부터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했다. 그것은 소그룹의 신앙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점차 확대되어 지교회로 발전해 나간다. 흠여지는 교회로서 세이비어 교회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구조라고 평가된다. 세이비어교회의 모든 구체적인 사역들은 내적인 사역인 (Inward Journey) 영성사역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영성의 핵심으로서 관상기도(Contemplation Prayer)를 중시하며 관상의 삶을 강조하는 공동체로서 행함(Doing) 이전의 존재함(Being)을 강조하고 있다.

영성사역에는 개인 경건과 소그룹 공동체 모임,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수양관 사역이 해당된다. 초창기 때부터 세이비어 교회는 메릴랜드 주에 복합 수련센터인 Daysprings Retreat Center 를 건립하고 사역에 임하였다. 이곳에서 공동체 일원들은 의무적으로 일년에 두번 3박4일씩 침묵수련의 시간을 갖는다. 모든 모임들은 5분에서 20분에 이르는 침묵과 중심의 기도로 시작한다. 세이비어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매일 한시간씩 기도예 헌신하며 많은 교인들이 관상기도의 전통에 대

해 깊이 있는 지도를 받는다. 교인들은 각 공동체별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매주 기록하는 등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게 된다. 통성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한국교회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교인들의 침묵성찰의 시간이야말로 교회의 본질 추구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세이비어교회의 크고 작은 45개의 사회사역 중에서 핵심 되는 사역을 소개한다.

1) Potter's House 토기장이의 집

내가 속한 지역사회로 나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카페 겸 서점이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 지점, 흑인과 중남미계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있는 아담스 모르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낮에는 카페로, 저녁에는 모임장소로 이용된다. 공연들과 소그룹 모임, 예배가 이루어진다. 검소하고 소박한 분위기로 편안함을 주고 있다. 1960년대 시절 워싱턴 지역 최초의 커피 전문점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무엇보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했다. 서가에는 대중적인 기독교 서적들 대신 현대신학과 영성의 고전들,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정의를 담은 책들이 가득 차 있다. 초창기 세이비어의 교인들은 본회퍼나 칼바르트의 신학을 배웠다고 한다. 이곳을 거쳐간 강사들 가운데는 월터 브루그만, 유진 피터슨, 파커 팔머, 폴 스티븐스 등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자유롭게 연구하는 것이 이곳의 컬처이다.

2) 콜롬비아 로드진료소

파키스탄 의료선교사로 지원했던 제넬박사가 1975년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 후에 빈민사역에 소명을 받고 1979년 세이비어교회 의료사역에 뛰어든다.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프로그램, 치료, 목회상담 및 정신건강 상담, 사회봉사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교인 가운데 몇몇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집과 워싱턴 빈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사역으로 발전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7,000 시간 이상씩 봉사하고 있다.

3) 그리스도의 집

1985년 노숙자를 위한 미국 최초의 24시간 병원시설로 시작되었다.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와 상담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만 8,0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마약이나 알코홀에 중독되어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마치 노숙자들이 항상 그자리에 익숙하게 있는 것처럼 지나쳐 버린다. 그리스도의 집은 이런 노숙자들을 품에 안았다. 가장 먼저 방문자들을 맞아주는 것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동상이다. 34베드 규모로 크지는 않지만 잘 정돈되어 있으며 병원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치료받고 있는 노숙자들은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이 건물의 3층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24시간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들은 안정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지역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사역을 돕고 있다. 각 지역교회에

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엘고어의 부인 티퍼 고어도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고 한다.

치료를 마친 노숙자들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과 신앙훈련 및 직업훈련을 받는다. 또한 직업 알선과 저소득층의 거처를 준비해 준다.

4) 사마리아인의 집

마약이나 알코홀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1985년에 시작되었다. 미국 전역에는 약 60만명의 노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약물중독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워싱턴 지역은 8,000-1만명의 노숙인중 50% 정도가 약물 중독 상태이다. 여기서는 중독 치료와 함께 사회정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다. 1단계로 28일간으로 짜여진 집중적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 12단계의 치료과정을 거친다. 80% 이상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치며 2단계는 과도기 프로그램으로 중독자들이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며 정상적인 삶을 준비한다. 돈관리, 건강관리 법을 배우고, 취업준비 등을 한다. 매년 150여명 대상자 가운데 65%가 치유되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3단계는 주거 프로그램으로 노숙자들이 정상적 삶을 시작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 200명 가운데 80% 이상이 약물중독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미국정부로부터 최고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아 15~20%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5) 희년 주거사역 Jubilee Housing

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아파트 임대사역으로 Potter's House 뒤쪽에 아파트 2동 800세대의 건물에 1600가구가 입주해 있다. 역시 독립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부동산 재벌인 제임스 라우슨이 세이비어교회의 사역에 감동하여 아파트 두동을 기증하였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하고도 정식으로 교인이 되지 못했다. 엄격한 입교과정 때문이다. 크리스찬 리빙스쿨을 마쳐야 하고, 하루 한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하고, 1년에 두번씩 영성 침묵수련회에 참석해야 하며, 자신의 은사에 맞는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여 훈련받고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매 1년마다 서약을 갱신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현대 교회들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6) 만나 주거사역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거사역으로서 빈민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이 개발에 밀려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장 싼 가격에 쓸모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세이비어교회의 지교회인 새공동체교회(New Community Church)가 주도하고 있고 짐 딕커슨 목사는 백인으로서 자식들을 흑인 학교에 보내며 흑인 빈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존경받는 목회자이다. 그는 서번트리더십스쿨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7) Festival Center

서번트리더십학교가 운영되는 곳이다. Potter's House 근처에 위치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의 동상이 있다. 예배는 방문자들도 참석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의 3층 게스트 하우스는 헨리 나우엔이 저술을 하며 머물렀던 곳이다. 헨리 나우엔은 여기서 봉사하며, 강의하며, "사랑받는 자의 삶" 을 집필하였다. 1층에서는 Servant Leadership School 의 강좌들이 1년에 봄 가을 겨울 세차례 오후와 저녁 시간에 진행된다. 마치 2차 대전때 본회 퍼가 시행했던 지하 신학교를 연상케 한다. 이 스쿨은 유명해져서 교인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세이비어교회의 비전을 배우기 원하는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들이 전세계적으로 찾아와서 비전을 공유하는 학교이다. 안식년으로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다.

8) 지역사회 연계사역들

선한 목자 사역(Good Shepherd Ministries) 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빈민지역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지역주민은 저렴한 비용을 지불한다. 사라의 집(Sarah's Circle) 은 나이 드신 여성들을 위한 양로원 사역이고, 방주 공동체(Community of Ark) 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역이며 요셉의 집(Joshep's House) 과 미리암의 집(Miriam's House) 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이 치료받으며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다.

9) 침묵기도 수양관 Daysprings Retreat Center

1950년대 초에 세이비어 교인들이 땅을 사서 기부한 것인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 수천만 불에 이른다고 한다. 200 에이커의 넓은 지역 안에 있고 건물은 서너채이다. 뒤쪽의 산과 앞쪽의 넓은 들판과 갈대밭이 있어서 경건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는 결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소그룹들은 1년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3박4일의 침묵기도 수련회에 참석해야 하며 인원은 18명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다. 참석자들은 지도를 따라 삼삼오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한다. 관상기도 또는 중심기도, 침묵기도라고도 하는데 고요한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이다. 통성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본질을 직시하게 하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한다.

3. 결론

이상으로 세이비어교회의 형성과정과 영성훈련, 그리고 지역사회사역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세이비어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불균형적 성장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분명히 건강한 교회 갱신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급진적인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느낌의 미학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성경의 제자양육의 원리를 따라 교인을 충분히, 더 나아가 그들이 강조하듯 "고도로" 훈련하여 세우고 실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이루게 하고 그룹

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사역에 대한 소명을 검증하여 순종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역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갔다. 각자의 소그룹이 공동체 사역으로 발전한 것이며 그들은 지교회로서 독립하여 예배와 사역을 드리고 있다. 이것은 세이비어교회가 발견하고 증명한 교회의 중요한 구조중의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교회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각 사역은 점차 확대되어 주위의 교회들과, 주민들의 자원봉사 협력 사역으로 발전하였으며, 나중에 비영리독립기관으로 등록하여 예산 재원을 확대하며(개인기부 50%, 교인헌금 25%, 정부지원 25%) 커다란 사회적 임팩트를 끼치게 된다. 오늘날 그 겨자씨는 큰 나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있다.

지나친 개교회 성장주의로 비판 받고 있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갱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이러한 세이비어 교회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있다. 이를 한국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물론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도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사회적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큰 교회는 큰 교회 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지역대로 각자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감당할 만한 사회적 결핍과 이슈를 선택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전도만큼이나 중요하게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역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20년~30년 후에는 교회와 사회의 공동발전과 균형적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의 개혁이다. 대형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 한국교회의 평신도 교육과정은 고급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훈련 과정이라 할지라도(예: 평신도를 깨운다) 사적인 신앙교육에 머물러 1루 2루 3루를 거쳐 홈베이스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즉 개교회 성장을 위한 내부일꾼 양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의식은 교회 내에서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만족하며 교회밖 세상, 즉 사회를 향한 공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를 소홀히 제한하여 성도의 진정한 공적 신앙인격의 발달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교회는 기본 신학을 비롯한 공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적 신앙교육을 마친 신자들에게 크리스찬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실천적 봉사 참여를 함양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까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세이비어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성향이 달라져야 한다. 주로 방언기도, 통성기도, 중보기도의 전통으로 구성되어 간구 중심의 성향으로 되어있는 바 이것은 한국교회의 적극적 기도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시 기도의 관점이 자기 중심적이고 사적인데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침묵기도, 중심기도 또는 관상기도의 과정을 개발하여 기도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적 교육과정과, 공적인 기도의 훈련이 함께 할 때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이 회복되고 사회적책임의식이 내면화되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진정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한국리더십학교 US필드스터디 팀 세이비아교회 방문 인터뷰 (2017. 8. 4. 워싱턴)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힌 삶, 고든 코스비, 2015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아 이야기, 엘리자베스 오코너, 2016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아 교회, 유성준 2005

사회적 하나님, 케네스 리치, 2009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KSLI 한국서번트리더십훈련원, 2018

글로벌시대의 교회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연구, 김성호 2012

사회적가치창출과 요한복음, 조성도 2019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 이병주 2019

평신도의 발견, 이병주 2016